



[세계인의 성경 인식]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및 규모	세계 150개국 성인 9만 1,000명
조사 방법	대면·전화·온라인 조사 병행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 군집 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조사 기간	2023~2024년
조사 주체	파트모스 이니셔티브(영국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설립한 연구 프로젝트)
조사 기관	갤럽

* 사회·종교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7개 클러스터로 분류했는데, 하나씩 해당 지역과 주요 응답(동의를)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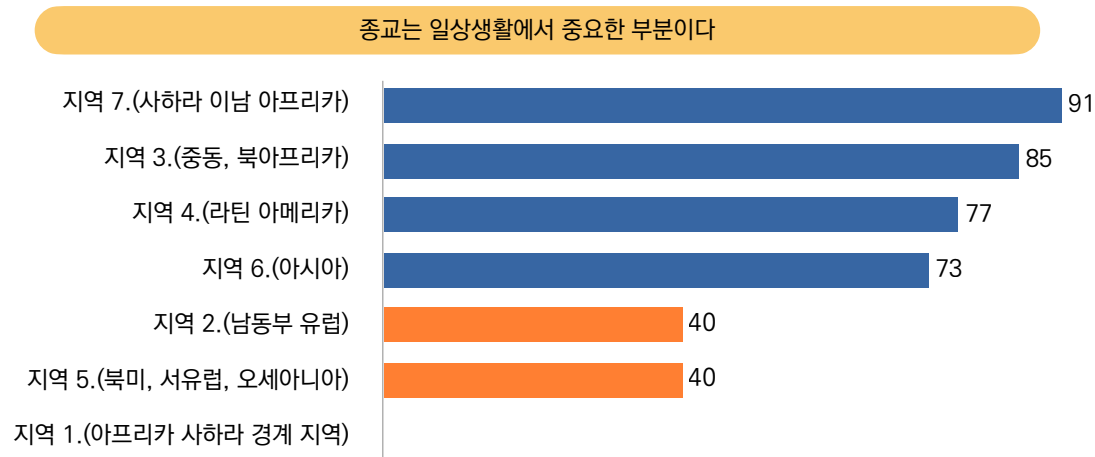
지역 유형 설명

지역 유형별	해당 지역
지역 1.	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의 경계) 지역(차드, 감비아, 말리, 니제르, 세네갈 등)
지역 2.	남동부 유럽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지역 3.	대부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반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지역 4.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등)
지역 5.	북미·서북유럽 및 오세아니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지역 6.	아시아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등)
지역 7.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카메룬, 콩고 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등)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북미/유럽 지역 절반 미만(40%) 동의!

-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보면 ‘지역 7’(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이 9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40%)은 남동부 유럽(지역 2)과 북미·서북유럽(지역 5)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림]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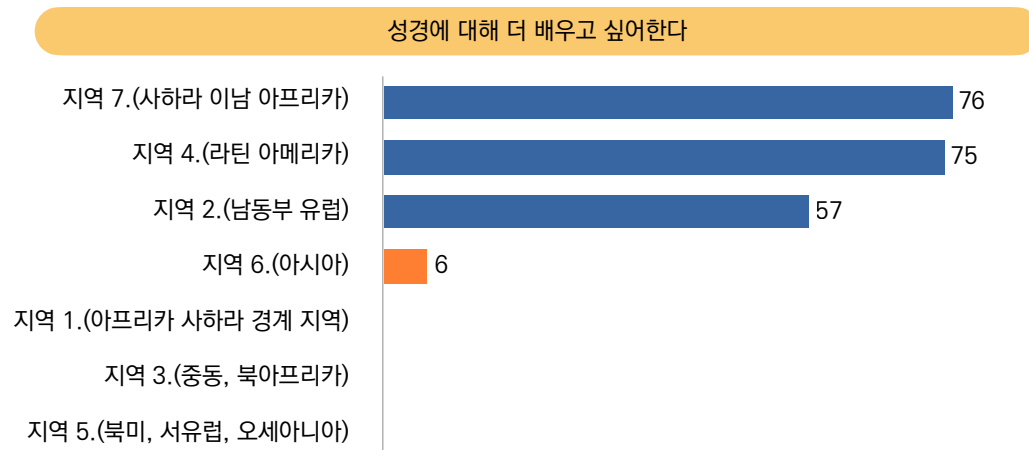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

한국 등 아시아(지역 6),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 6%에 불과!

-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한다’ 동의율을 보면 한국 등 아시아가 속한 지역 6이 6%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한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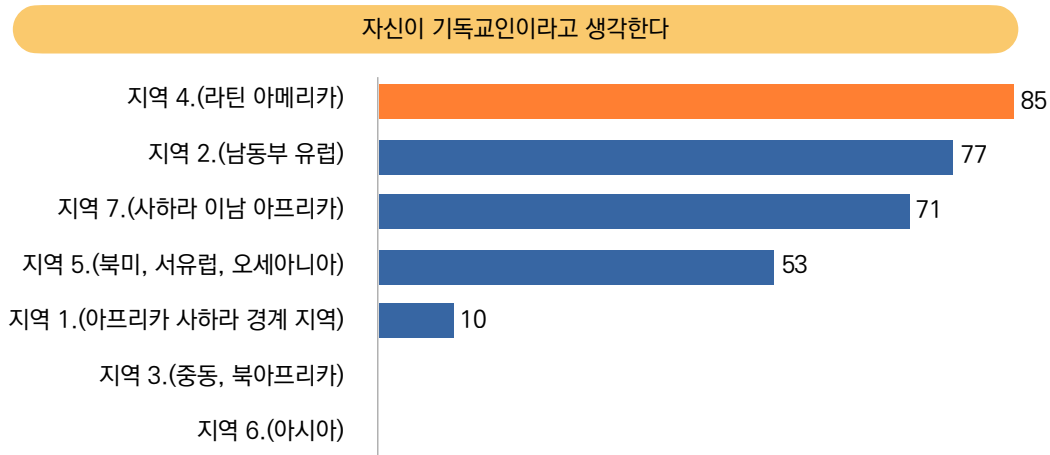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

라틴 아메리카(지역 4),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85%!

-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비율은 ‘지역 4’인 라틴 아메리카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1’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지역으로 기독교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